

<호암 이병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호암 이병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제 성장과 기업가 정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학회,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암 이병철 회장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2월 10일 서울신라호텔(2층 다이내스티홀)에서 '한국경제 성장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경제로 나아가려면 선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남상구 한국경영학회 회장(고려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기업경영의 지나친 보수화로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현상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호암재단 이현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호암이 이룩한 지난 100년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있다"고 전제하고 "오늘날 호암의 사상과 철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와 미래에 속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포지엄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타룬 칸나(Tarun Khanna) 교수를 비롯하여 프랑스 소르본대학(파리제4대학)의 랑리 박 바흐조 박사와 도미닉 바흐조 교수, **일본 게이오대학의 야나기마치 이사오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이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연세대 경영대학의 장진호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의 송재용 교수가 발표를 담당했다.

타룬 칸나 교수(하버드대)는 '한국의 기업집단과 신사업 창출'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기업집단이 산업 및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장진호 교수(연세대)는 '한국 경영사에서 호암의 위치'를, 랑리 박 바흐조 박사와 도미닉 바흐조 교수(소르본대)는 '유럽 경영사학의 관점에서 본 호암의 경영 이념'을, 야나기마치 이사오 교수(게이오대)는 '호암의 인재경영'을 주제로 각 40분씩 발표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송재용 교수(서울대)는 '21세기 한국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 아래 호암의 기업가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호암의 추억: 곁에서 본 호암 이병철 회장'이라는 주제의 런천특강을 통해 본인이 지켜보았던 호암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2월 10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학자, CEO, 학생,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한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기업가로서 호암의 진면목을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 저명학자들의 관점을 통해 재조명하고, 21세기 새로운 백년을 향한 한국기업의 성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심포지엄은 미국의 경영학계는 물론 일본과 유럽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한국기업의 성장과 호암의 경영철학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주목받아온 한국의 경영과 경영학이 국제 학계의 관심을 받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끝)

출처 : 전경련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출처 : 전경련

[2010-02-10 17:00 00 송
고]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